여 '박근혜 친정체제' 강화

이한구 원내대표 선출 '박근혜 대세론' 굳히기

친박계 지도부 장악에 내부 역풍·야당 공세도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 첫 원내대표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9일 선출되면서 박근혜 친정체제는 더욱 단단해지게 됐다. 5·15 전당대회에서도 친박계 인사들이 최고지도부를 거의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박계 색채는 더욱 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결과 4선의 이 의원(대구 수성갑)이 선출됐고,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나선 3선의 진영(서울 용산) 의원이 당선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과 같은 대구 출신으로 박근혜 경제 교사로 불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러닝메이트인 진영 정책위의장은 박 위원장의 과거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본박(本朴·본래 박근혜) 인사로 통한다.

이들은 앞으로 대선국면에서 경제민주화, 평생 맞춤형 복지 등 '박근혜표 정책'을 법안으로 입안하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선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대선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 비박계 대선 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몽전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계 잠룡들이 완전국민경선제를 고리로 박 위원장과의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야당의 비판과 공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세론이 굳건해질수록 야당의 공세도 그것에 비례해 거세질 공산이 크다. 이번 선거는 '박심'(朴心·박근혜 의중)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경필·이한구·이주영 세 후보가 막판까지 혼전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전날 용산 방문이 사실상 판을 정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결선투표에서 이한구(72표), 남경필(66표) 두 후보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해 박심이 없었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1차 투표에서는 남 후보(58표)가 이 후보(57표)보다 한 표 더 얻었다. 남 의원은 결선에서 석패했지만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계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쇄신파의 세(勢)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대등한 승부를 벌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쇄신파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 의원은 선거 패배와 관계없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위해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입장에서도 낙승이 아닌 신승을 거둔 만큼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한구 '제대로 한 판 붙나' 박지원

대선 정국 여야 원내사령탑 주도권 싸움

벌써부터 국회 개원 협상 불꽃공방 예고

9일 새누리당이 이한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에 따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한 판 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원내 사령탑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콤비 플레이'보다는 정치공방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깐깐한 원칙주의자 성향인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치력이 강한 전략가 스타일로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에 앞선 토론에서 "민생 이슈 선점 능력과 전략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며 대야(對野)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상력, 투쟁력 면에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한 돌파력과 함께 진정한 정책 승부를 내야 한다"고 말해 강공을 예감케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간인 사찰, 디도스 테러, 자원 외교, 측근 비리 의혹 등을 열거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19대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여당이 내놓았던 각종 공약과 정책 실현에 총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 정치'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에서의 '정권심판론'을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권 행보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어서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의 첫 번째 대결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이 될 전망이다. 대선에 대비, 휘발성이 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등은 '격전' 상임위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권 도전 임태희, 박근혜에 또 한마디

"한풀이 정치 악순환 끊는데 동참하라"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9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과 증오의 되갚음으로 악순환 되는 고리를 끊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박 위원장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전날 "킹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한데, 이어 박 비대위원장을 향해 거듭 대선출마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급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정치는 집권 못하고 야당을 할 땐 한을 품고 있고, 증오심을 갖고 있다가 정권을 잡으면 한번 해보자며 막 되갚는 한과 증오,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도 '우리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구도 속에서 우리 정치가 연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가 다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악습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치가 열어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빨갱이다, 친미주의자다 공격을 할 텐데 지금 정치구도에서 박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뭐라고 공격할까, 야당에서는 아마 가장 상처를 낼 수 있는 공격을 퍼부을테고…"라며 "이 악순환 구도가 결국 왜 가능한가, 그것은 한국 정치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중 당적자' 선거 무효 판결

새누리 광주시당 항소

최근 법원이 지난해 8월 열린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2중 당적자가 포함돼 있다'며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9일 항소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입당 때 이중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시당 대회의 본질과 현 정당의 당원 모집 제도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자칫 원고 측의 입장이 옹호되고 당내 문제를 소송으로 비화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당의 자존과 명예, 안정을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수생)는 지난달 26일 이모(66)씨가 새누리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박근혜, '침묵의 커튼' 뒤에 숨지말고 행동하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침묵의 커튼' 뒤에 숨지 말고 행동하라. '나 홀로' 리더십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4년의 수많은 실정,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그대로 둔 채 입으로만 변화와 희망을 논의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공격의 포문은 정권교체를 제1의 목표로 내건 그의 의도적 전술로 해석되다.

측근 비리와 레임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박 비대위원장을 함께 공격함으로써 같은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측근 비리) 수사에 검찰 운명이 달려있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19대 국회에서 진상조사·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달 민주당 전당대회를 가장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전당대회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 국민과 함께 지난 4년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진일보시키는 희망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일 간에 군사협정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의 주요 목적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본의 대북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인적정보)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해도 조용히 처리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강남3구 규제완화 총선보답용"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9일 "강남 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부실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곧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부동산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현정부 들어 3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시켰다"며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은 대책을 남발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총선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데 대한 정부여당의 보답이자 친부자정책으로의 환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을 부추겨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트래블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 : 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국 내

선박 목포-제주도 품격 ₩139,000~ 실속 ₩109,000~

장흥-제주도 품격 ₩159,000~ 실속 ₩14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수송비(광주-목포&장흥)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3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유류할증료(₩13,200) 석식,수송비(목포-광주)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울릉도 2박 3일 ₩325,000~ 1박 2일 ₩294,000~

홍도,흑산도 1박 2일 ₩189,000~

일 본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출발확정) ₩349,000
출발일 5/13, 6/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구중산 철쭉 축제 등반 ₩399,000
출발일 5/13, 6/6, 16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99,000
출발일 : 5/13, 6/2, 6 16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519,000
출발일 : 6/6, 16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항공으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교토, 와카야마 ₩899,000
출발일 : 5/16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3일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699,000
출발일 : 5/16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팁

유 럽 유럽으로떠나자!

서유럽 3국 8일 ₩2,890,000~
불포함: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택스

서유럽 5국 10일 ₩3,690,000~
불포함: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택스

안탈랴/터키 일주 8일 ₩2,290,000~
불포함:공동경비

스페인/포루투칼 10일 ₩3,290,000~
불포함: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중 국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4월 무안-북경/평요/면산 ₩869,000~

5월 무안-북경/평요/면산 ₩919,000~

불포함:개인경비,중국단체비자,기사&가이드팁

4월 무안-북경/만리장성 ₩429,000~

5월 무안-북경/만리장성 ₩499,000~

4월 무안-상해/장가계 ₩899,000~

5월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주가각 ₩1,299,000~

5월 무안-상해,황주,황산 ₩749,000~

불포함:유류할증료(₩120,800),단체비자,가이드&기사팀

청주/연길 전세기(KE) [6/30~8/29(수/토)] 출발

백두산[북파] 3박5일 ₩1,080,000~

백두산[북파/서파] 3박5일 ₩1,110,000~

백두산[서파/북파] 4박6일 ₩1,150,000~

불포함:가이드&기사팀

동남아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 뜰 ₩839,000~

실 속 ₩789,000~

품 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자(10$), 매너팁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